

‘민주주의는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국내외 정치적 혼란 속에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가진 의미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5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는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를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 제30강을 개최했다.

이번 백년포럼은 전 KBS 기자인 최경영 정치경제시사 유튜버를 초청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논하고 민주주의의 건전한 작동을 어렵게 하는 심리적·환경적·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자는 미국 국내외 정책 기조와 1920년대 화화론과 반이민법 등 역사적 사건을 예로 ‘혈오’의 심리가 어떻게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주고 더 나아가 독재의 기회를 제공하는지를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배경을 분석했다.

또한 독재권력이 나타나기 쉬운 환경과 한국이 독재에 취약할 수 있는 역사적 맥락을 설명했다.

증가하는 빛, 저조한 경제성장률,

백년포럼 30강, ‘진정한 민주주의’ 논의의 장 열려
최경영 전 KBS 기자 국내외 사례·역사적 맥락 설명



25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는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를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 제30강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쟁과열, 각자도생의 교육, 부의 집중, 소수의 엘리트 카르텔, 정치경제적 침체기에 나타나는 대중의 착각,

미디어의 영향 등을 독재권력 등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했다.

이어 3천년의 왕정에 비해 30년에 불과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1955년 이승만 대통령 80세 탄생 경축식 사례, 1973년 KBS 사보에 실린 공영방송 KBS의 사명을 통해 역사적 맥락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독재권력에 취약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했다.

최경영 정치경제시사 유튜버(전 KBS기자)는 그럼에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가진 역량에서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나의 민주주의는 진짜인가’를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당부로 강연을 마쳤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전 국민이 경제위기와 정국혼란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북 백년포럼’은 전북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하며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촉구”

문승우 도의회 의원,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2500m 불과

안정성·국제 항공 경쟁력 강화하고 안전대책 확보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원은 25일 경남 김해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25년 제2차 임시회에서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및 안정성 확보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국내 공항에서 잇따라 발생한 항공기 사고는 활주로 길이와 기준에 맞지 않는 안전 시설 설치 등 공항의 회랑을 발견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나의 민주주의는 진짜인가’를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당부로 강연을 마쳤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새만금국제공항을 비롯한 국내 주요 공항의 활주로 연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항공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가 항공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30년 개항 예정이지만, 계획된 활주로 길이(2,500m)는 타 국제공항 대비 턱없이 짧아 중·대형 항공기 운항에 제약을 줄 가능성이 크다. 가덕도(3,500m), 대구경북통합공항(3,500m), 제주 제2공항

(3,200m) 등과 비교해도 새만금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안정성과 국제 경쟁력이 부족하며 약천후 시 이·착륙 안전성에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활주로 연장을 통해 안정적인 운항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적인 허브 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정부에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개항 및 활주로 연장 추진 △조류 충돌 방지 대책 강화 △로컬라이저 시설 개선 △공항 안전 기준 강화 및 예산 증액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승우 의원은 “활주로 연장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공항의 안전성과 국가 항공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새만금국제공항이 국제적 허브 공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삶의 질 향상 위한 통합지원체계 마련... 생애주기별 맞춤형 15개 사업에 342억원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올해 총 342억 1,500만 원을 투입해 15개 사업을 추진하며, 발달장애인의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정책은 발달장애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보호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발달장애인의 연령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한다.

먼저 발달장애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전문 양육 기술 및 장애 이해 교육을 제공해 조기 개입 효과를 높이고, 부모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월 최대 68시간까지 지원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성 증진을 도모한다.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인과 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진로 상담, 자립 교육, 성 인권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

를 제공해 성인이 준비를 돕는다.

올해부터는 기존 65세 미만의 청장년기에만 지원되었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연령 상한이 폐지돼 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도 추가 지원을 포함해 월 최대 142~166시간의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생애에 걸친 지원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지원, 가족 휴식 지원(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등을 통해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올해에도 동부권역수행기관(익산동산사회복지관) 및 서부권역 수행기관(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3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일상에 벗어나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예측할 수 없는 돌봄 공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및 긴급돌봄을 운영한다.

한편, 전북도에는 1만4,315명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며, 이는 도 전체 장애인 12만8,989명의 9%에 해당한다. 발달장애는 대부분 유아기부터 평생 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애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만호 기자

도 산림박물관, 봄철 맞이 특별기획전 개최

산림의 인문학적 해석을 강조한 ‘숲과 사람-사유하는 붓질’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은 25일부터 봄 특별기획전 ‘숲과 사람-사유하는 붓질’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를 2025년 봄을 맞아 박물관을 새롭게 단장하는 특별기획전으로 한국화 작가 3인의 20개 작품을 전시한다.

전시는 산림과 예술의 조화를 주제로 산림의 인문학적 해석을 통해 삶 속에 녹아있는 자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한국화의 장르적 성격을 확대하여 실험성을 강조한 작품으로 구성했다. 박지수는 반복된 붓질과 층

층이 쌓인 채색으로 장지에 우러난 화면질감을 통해 전통적인 사의적 세계관과 현대적 조형 언어를 동시에 표현한다.

이미영은 도시 생활로부터 오는 상처와 무기력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식물을 키우면서 자연 환경 변화를 기록해왔던 ‘대지’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밀도있게 담아내었다.

이흥규는 담백한 먹의 흐름, 절제된 빛과 색채의 조화로 따뜻하고 잔잔한

감성적 풍경을 담아 한국화가 갖는 보편적 서정성과 자유로움을 감각적으로 구현한다.

송경호는 도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전시는 산림박물관이 갖는 고차별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것으로 장르별 넘나들기를 통해 관람객과 밀도있게 소통하며 예술의 사회적 역할인 ‘연대와 공감’을 통해 산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소방,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근절하고 안전한 구급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2024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전국 18개 시·도 중 17위로 단 1건의 폭행 피해만 발생하여, 세종특별자치시(0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폭행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소방본부가 구급대원 보호장비 보급 확대, 경찰과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 그리고 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평가된다.

소방본부는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피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피해 구급대원에 대한 법률 지원과 심리치료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현장대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